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93호(통권588호) 포덕 163(2022)년 5월 6일(금요일)
발행인: 박상종 / 편집인 겸 주간: 주용덕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모심으로 하나 되



의암성사 순도 100주기 추모식 성대히 봉행키로

5월 19일 중앙대교당에서, 학술문화제와 주문으로 하나 되기 등 추모행사, 우이동 묘소도 참배



의암성사 순도 100주기를 맞아 중앙총부는 오는 5월 19일 오전 11시 중앙대교당에서 추모식과 학술문화제, 주문으로 하나 되기 등 추모 행사를 성대하게 봉행키로 하였다. 이번 순도 100주기를 맞는 추모식은 모두 3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추모식은 개식과 국민의례,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 병송, 경전봉독(성령출세설), 천덕송 합창(의암성사 추모가), 추념사, 헌사, 분향, 심고, 폐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식 후 이어지는 제2부 학술문화제는 이병한 원광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성사의 삶과 인내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제3부 '주문으로 하나 되기'는 추모식 참가 일동이 37자 주문(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을 105회 합송한다.

중앙총부는 중앙대교당에서 봉행되는 추모식에 앞서 오전 9시 우이동 의암성사 묘소를 참배한다. 이번 의암성사 순도 100주기 추모식을 봉행하기 위해 지방교구에 버스운행을 지원하는 등 중앙총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방교구와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천도교 제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성사는 포덕 51년(1910) 국권피탈 이후 53년(1912)에 우이동에 봉황각을 짓고 국권 회복의 그 날을 내다보며 이 해 4월부터 55년(1914) 3월 25일까지 전국의 천도교 지도자급 인사 483명을 49일씩 7차에 걸쳐 특별수련시키었다.

여기서 특히 '이신환성'과 '성령출세' 법설을 자주 설법하였다. '이신환성'은 일시적인 객체인 육신의 안락을 버리고 영원한 주체인 '성품(性)'을 주삼으면(主張) 영원히 복록을 받는다는 요지의 설법으로 장차 독립운동을 이끌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앙대교당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여 이중 대교당 건축에 들어간 30만원을 제외한 자금 대부분을 3·1운동 준비 자금과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의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의암성사는 3·1운동 민족대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병보석이 되어 치료받았지만 포덕 63년(1922) 5월 19일 환원하였다.

정부는 1962년 손병희 선생의 공로를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총부 직원 전체회의

5월 4일, 상주선도사 도첩 수여와 기관간 소통을 위한 대화



총무원(원장 주용덕)은 총부 전체 직원 월례회의를 5월 4일 개최하였다.

희암 성주현 상주선도사 도첩 수여에 이어 박상중 교령은 격려사에서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다”라며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가능하면 공유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아 달라”며 소통을 강조하였다.

주용덕 총무원장은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모심으로 하나되어’ 슬로건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로 합심하여 줄 것”과 “얼마 전 원불교 교역자들을 만나 보았는데 얼굴에 원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고 애교심·봉사심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우리도 교역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후 “계획된 시간 안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교헌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을 활용하자”, “특별회계사업은 최소 3개월 이전에 제안해야 사업변경이 가능하다.” 등등 각 기관·단체별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 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기사 상주선도사에 위촉된 희암 성주현 동덕

제1차 총무위원회 개최

4월 22일, 온라인 병행



중앙총부는 4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갑선 교무관장의 집례로 새 집행부와 함께 할 총무위원에 대한 박상중 교령의 도첩수여식 후 회의가 진행되었다.

박상중 교령은 격려사에서 “본인이 교령 당선 인사말에서 언급한대로 교구 중심제로 총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총무위원을 전국 교구장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

였다”면서 “힘을 모아 교단 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총무위원은 이미애(교화사회문화관장), 접갑선(교무경리관장), 문범식(전서실장), 김진순(마포교구장), 박노임(대전교구장), 석영기(춘천교구장), 윤철현(전주교구장), 정의적(진주교구장) 등 8명과 온라인 참석 1명(박차귀 부산시교구장)이다.

제1차 기관장회의 개최

4월 29일, 정덕재 감사원장은 온라인 참석



박상중 교령은 4월 29일 제1차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교단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은 박상중 교령, 이정희 연원회의장, 주용덕총무원장, 선우철수 종의원의장, 정덕재 감사원장(온라인 참여), 오태승 유지

재단이사장 등 6명이다(현기사는 상주선도사 미위촉 상태).

이날 회의에서는 ▶ 서울교구 건물 철거 건 ▶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수탁 운영 건 ▶ 박기섭 전 중앙감사 건의문 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원회의장단 감사패 수여

정의맹 전 연원회 의장에게



천도교연원회(의장 이정희)는 4월 29일 맹암 정의맹 남정포 도정(전 연원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감사패에는 ‘지난 3년간 연원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연원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기에 감사하

다는 뜻을 담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박상중 교령, 이정희 의장, 김산 부의장, 김성환 부의장, 양선미 간사가 함께 했으며 감사패 수여 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시천주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4월 29일 수운회관 1302호, 신임이사 선임 등



시천주복지재단(이사장 김순홍)은 4월 29일 수운회관 1302호 시천주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천주복지재단 이사 선임 건, 신임이사 선임 건, 감사 선임 건, 정관 변경 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상종 교령, 일암 이영복 종법사 예방

5월 4일, 강서구 화곡동 종법사 자택으로



박상종교령은 5월 4일 종무원장(주용덕), 교화관장(이미애), 전서실장(문범식)을 대동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암 이영복 종법사택을 예방하였다.

올해 만 100세 고령이신 일암 종법사께서는 가르침을 청하자 “교령이 되시고, 종무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한울님 뜻입니다.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니 급하게 무

엇을 이루려는 것을 삼가세요.”라시며, “교령께서는 건강할 때 전국 교구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살피주세요.”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박상종 교령은 “한울님 뜻으로 알고 성심성력을 다해 천도사업을 하겠다”며 “건강히 계시면서 교단을 살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였다.

신암 송범두 전 교령,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통일운동 유공, 매암 이재선 청년회장은 대통령 표창 수여



신암 송범두 전교령은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정부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민간 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통일 유공 훈장은 2008년 인암 박남수 전교령(당시 동민회 상임의장)의 동백장 수여 이후 천도교인 수상이다. 신암 전교령은 동민회

상임의장, 겨례의숲 이사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여러 역할을 해왔다.

이날 매암 이재선 천도교청년회장은 민화협 청년미래위원장으로 16년간 통일운동에 이바지한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환원 소식〉

서울교구 보암 입보국 선도사(향년 90세)

환원: 4월 11일 오전 9시경 숙환으로

장지: 원주 하늘나래원(강원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상주: 자) 임현덕 010-5360-5798

고인의 성령출세를 심고합니다.

사설

주인의식을 갖자

성공적인 삶을 누리려면 우선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 마음에는 온도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온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약해진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차갑기 때문이다. 천도교인은 늘 마음 온도를 잘 조절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주인의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이 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주인의식’이란 자기 것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깨어있는 정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인격적 특징은 책임감이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의식이 모자란 사람은 자기 가 불리해지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곤 한다.

우리 교단은 선대 교인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일궈놓은 교단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주인은 바로 교인이다. 그러

나 주인이면 주인다워야 하고 주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겸손함과 덕망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솔선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진실이 통할 때 마음의 평온을 얻어 믿음의 질이 배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우리 삶의 질도 바뀔 수 있다. 개혁도 주인이 해야 하고, 변화도 주인이 주도해 바뀌어나가야 한다. 주인이라면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해서 삐뚤어지게 행동하지 말고 대의를 따르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주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 역사사의 정신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의식과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는 한울님께서 신뢰를 함께 쌓아 주고, 결코 그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매사에 현명하게 판단할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이다. 겉모양과 형식적으로 한울님을 섬기지 말고 신앙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성으로 한울님을 섬기는 천도교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 교령사 예방

5월 6일, 국회의원 김병주, 박성준의원 동행
5월 8일에는 봉황각 방문



송영길 서울시장후보(더불어민주당)는 5월 6일 천도교중앙총부 교령사를 예방했다.

송영길 후보는 박상종 교령에게 “서울 시장에 당선되면 천도교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유엔5본부 서울에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평화서울을 만들겠다”는 자신

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박상종 교령은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면 무위이화의 열매를 맺을 것”이란 덕담으로 화답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인천계양 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바 있다.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기념 행사 개최

- 4월 30일 전야제, 5월 1일 기념식 및 재현행사 등 열려



포덕 63년(1922) 5월 1일, 우리나라 첫 어린이날이 시작된 날이다. 어린이날제정100주년기념사업회(위원장 주용덕)는 5월 1일 오후 12시 30분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식-모도가 봄이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전 11시 소파 방정환 선생 출생지인 당주동에서 종로 대교당까지 2.1km를 행진하며 어린이날을 홍보하는 '재현행사를 진행했다. 타악대를 선두로 한 재현행렬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팻말과 깃발을 손에 든 어린이와 어른 참여자 3백여 명이 종로를 행진하여 중앙대교당까지 행진하여 행사장에 당도하였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은 국악인 김애리 씨의 사회로 어린이역사합창단(단장 박용진) 40여 명이 '산길', '어린이

날 노래', '방정환' 세 곡을 연달아 불러 참석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이어 장예린, 김시우 두 어린이 대표가 각각 작성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를 낭독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황희 문체부 장관의 축사(영상), 주용덕 총무위원장(천도교어린이날제정100주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현역 최고령 동시 시인인 신현득 시인의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축사'를 아동문학가 신새별 씨가 감동적인 어조로 낭송하였고, 방정환의 시에 곡을 붙인 '모도가 봄이다' 노래를 심심프로젝트&노래하는 꿈틀이들 출연진이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로 연주하였다.

100년 전(1923년) 발표되었던 '어린이 해방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100주년

을 맞이하여 앞으로 100년을 향해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약속하는 '어린이날 앞으로 100년-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를 이재선 청년회장, 안덕용 배우(방정환 역 배우), 김시우·장예린(어린이대표), 신새별 씨가 선언하였다. 이어 '코리안원 드 오케스트라' 21명의 단원들이 '어린이 세상'이라는 제목의 연주곡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끝으로 전체 출연진이 출연하여 '방정환의 꿈',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 2곡의 대합창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장 앞마당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 기계를 소망하신 방정환의 뜻을 살려 발명된 '방정환 다람쥐 그네' 2대가 가동되어 어린이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이어졌다.

한편, 전야제로 열린 '4월 그믐날 밤' 행사는 4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열렸다. 전야제 '4월 그믐날 밤'은 방정환의 대표 동화인 '4월 그믐날 밤'을 그대로 행사명으로 하여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컸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소춘 김기전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등이 천도교청년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주고 억압받는 어린이를 해방하자는 취지로 1922년 5월 1일을 첫 '어린이날'로 행사를 한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 이후 어린이날은 해방 후 첫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5월 5일로 바뀌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64만 장을 발행하였다. (관련기사 5, 6면)



[기념축사]

어린이날 100년에

신 현 득

백년이란 무엇인가?

1만년에다 바탕을 놓은 것,
1천년을 향해 달려 온 하나의 고개.
하나의 씨가 싹터,
1백년 꽃을 피우고 1백년 열매를 키워서 거두는 시간.
쉬운 말로는 1세기다!

어린이 날 100년은 무엇인가?

독립운동의 다른 이름으로 세운 깃발 <어린이의 날>이었지.
어린이들을 길러 독립운동에 보내었는데,
침략자가 물러간 뒤에는 이들이
나라 건설에 힘을 모았지.

일하고 땀흘리고, 들을 가꾸고, 기계를 돌리더니

“어영~차! 영차! 영차!” 소리 맞춰
후진국 이름의 조국을 번~쩍 들어서
세계 10위권에 올려놓은 기적!

그게 어린이날 100년이 키운 나라 힘이다.

그 힘이 어린이날 100년이다!
어린이날 100년에 이룬 기적의 탑을 바라보는 게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 100년은 무엇인가?

1922년 5월 1일, 천도교회 소년회에서
어린이의 날 첫 깃발을 들고,
전단을 가두에 부리며 외쳤지.

— 십년 후 조선을 려(慮)하라!

— 십년 후 조선을 려하라!

— 십년 후 조선을 려~하라!

외치며 외치며 행진을 했으니 이날이 어린이의 날 첫날.
오늘 100년은 어린이날 첫날에서부터 역사를 더듬는 날.

— 같이 일했던 색동회 역사 챙겨보기.

— 1957년에 공포한 <어린이 헌장>을 찾아보는 일

— 같이 걸어온 교육의 역사를 살피는 일.

— 1970년 어린이날이 공휴일 되던 기쁨을 챙겨보는 일
이것이 어린이날 100년에 할 일.

그리고 또, 어린이날 100년이 무엇인지?

역대 어린이를 위해 애쓰신 분을 국민의 가슴에 모시는 일.
— <사랑의 선물>을 든 소파 선생부터 다음은 반달 선생을.
— 눈술 따오기·해송·석동 소천 등
— 고향의봄·초록바다·나뭇잎배·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글과 노래로써 어린이를 길러온 선배들의 고마움을
어린이들 마음에 담아 주는 일.

그리고 또, 어린이날 100년은 무엇인가?

오늘에 수고하는 우리를 살피는 일.
— 어린이들 위해 좋은 문학잡지를 내는 이들.
— 힘들여 작품을 쓰는 아동문학 작가들.
— 교육 일선에서 뛰는 교육자들
이들이 모두 어린이 운동가다!

어린이 날 100년이다, 1세기다!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음의 100년을 바라보자.
세계를 향하자, 희망이 열려 있구나.
세계를 향해서 외치자!

2022년 5월 1일 오늘은

어린이날 100년이다!

어린이날 기념 음악회, 도서전시회 등 열려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회는 5월 26일까지 중앙대교당에서



천도교중앙총부(행사주간 청년회)는 5월 5일 중앙대교당에서 ‘제 100회 어린이날 기념 음악회’를 하였다. 중고생으로 구성된 역사청소년합창단, 초등학교생으로 구성된 역사어린이합창단이 어린이날 100회를 기념하여 방정환의 동시·동요를 아름다운 합창으로 불러 내방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중앙대교당과 앞마당에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회가 5월 5일~5월 26일 진행 중이다. 중앙대교당에서는 소파 방정환의 생애 이야기를 10개의 큰 판에 제작하여 병풍형태로 전시중이고, ‘방정환 이야기 극장 <시골 쥐의 서울구경> 슬라이드 동화 상

영’과 ‘이야기 들려주기 공연’이 매일 4회씩 공연된다.

대교당 앞마당에서는 ‘시대를 빛낸 한국동화 100선’ 전시와 방문객이 직접 만들어 전시하는 공작소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공연·전시문의 02-3672-4447 어린이도서연구회(www.childbook.org)



경주 용담정앞, 어린이날 기념 행사



방정환배움공동체 ‘구름달’과 사단법인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경주 한살림은 5월 5일 경주시 현곡면 용담정 일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날, 앞으로 100년의 약속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앞으로 100년의 약속’ 선언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1923년 소춘 김기전, 소파 방정환 등이 작성한 “소년운동선언(어린이운동의 세 가지 조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동무들에게)”를 기리며 100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약속으로 마련된 것입니다.[편집자 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 씩씩하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는 참된 어린이들과,
어린이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애쓰는 모든 어른들은
오늘 5월 초하루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고요히 생각하고 결심하여, 다시 미래 100년의 꿈을 선언하면서
온 세상 물오인오 동포와 더불어 함께 공명하고 실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다함께 약속하는 글

어린이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 자랄수록 크고 깊어질 사람, 우주생명을 길
이 이어줄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
게 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어린이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린이
입니다. 새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사람은 모두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마음
을 늘 잊지 않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신생의 날, 희망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 서로를 위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날입니다. 삼백예순날 언제나 어린
이날을 맞이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 온 세상 어린이가 완전한 인격적 주체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 세상 어린이가 고통과 소외,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 세상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 세상 어린이가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있고, 어떤 꿈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 세상 어린이가 안전하고 복된 지구에서 만유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다 함께 희망하는 글

1.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다함께 행복한 세상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 언제나 꿈을 잃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달아, 내 뜻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남의 말에 조심히 귀 기울이며, 겸손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 하늘 높은 것을 닮아가고 땅이 넓은 것을 배워가며,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1.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에서, 어른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 온 세상 어린이, 온 지구 생명과 모두 친구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교구 교구장에 동암 조광걸 동덕 선출

5월 1일 교구회의, 감사장에 정암 박정연 동덕



영등포교구(교구장 허태영)는 5월 1일 시일식 후 교구대회를 열어 동암 조광걸(만61세) 동덕을 교구장으로, 정암 박정연 동덕을 감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교구장에 선출된 동암 조광걸 동덕은 취임 인사에서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활성화 할 수 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아껴줄 수 있고, 교인들 서로를 간절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가 조그마한 단초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같이 위하게 되면 도가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음이 상으로 교인 한분 한분께 제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교구 여성회, 제54주년 기념식

5월 1일, 박징재 전임 감사 공로패 수여



서울교구여성회(회장 박태량)는 5월 1일 시일식 후 중앙대교당에서 제54주년 결성기념식을 개최하였다.

4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최선옥 교화부장의 집례로 사계명낭독(소금주 조직

부장, 강령낭독(김정화 부회장), 연혁 보고(정소연 총무부장), 기념사(박태량 회장), 격려사(윤태원 교구장), 축사(박징재 여성회본부 회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임 감사를 지낸 박징재 여성회본부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천덕송합창으로 동학의 딸 제1장을 부르고 폐회하였다. 이어서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홍순억 회원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박징재 전감사가 지난 3월 25일 천도교여성회본부 회장에 선출되어 더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되어 새 감사를 선출하게 된 것이다.

동학혁명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포고문 선포한 집결지, 학술연구·증언 등으로 장소 추정



동학혁명이 전국적 봉기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 장소인 전북 고창 무장기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전라북도기념물 ‘고창 무장동학농민혁명 기포지’를 ‘고창 무장기포지’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학계에서는 무장기포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장소를 확정할 만한 유적과

유물이 나오지 않아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를 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된 학술대회와 ‘수록(隨錄), ‘무장현 채색지도’, ‘무장현도’ 등 고문헌 분석을 통해 구암리 590번지 일대를 기포지로 추정했다. 주변에 거주하는 여러 주민이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해 훈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학혁명은 민족 자주권을 수호하려 했던 민주항쟁임에도 오랫동안 ‘동학란’이나 ‘반란’으로 인식됐다”며 “최근 동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여러 주제의 학술 연구가 이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과 협력해 고창 무장기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해동학혁명 제151주년 추모제

동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기로, 탐방로 순례 예정



1871년 영해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871년 영해에서 전개된 동학혁명 제151주년 기념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추모제는 권태용 사무차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 청수봉전, 살풀이춤, 추모시 낭독, 기념사(권대천 공동위원장), 격려사(김두기 영덕문화원장, 김경종 영양문화원장), 추모곡(가수 금춘화), 추모 연주, 추모사(전의철 후손 전동일), 연대발언(최인경 동학혁명선양사업단장, 성주현 신인간사 주필), 헌화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모제는 영해면사무소 앞 소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우천 관계로 영해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권대천 공동대표는 기념사에서 “형제봉 병풍바위에 시천주, 사인여천의 뜻을 기리고 영해부를 습격하여 탐관 이정 부사를 처단하고 민의를 세운 1871년 신미년 동학혁명 제151주년 기념하여 추모제에 참석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

하고 “영해에서 전개된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기억하고 계승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인경 단장은 연대발언에서 영해지역 동학혁명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고, 성주현 주필은 영해동학혁명은 근대를 여는 첫 혁명으로서의 의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1871년 영해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2020년 11월 28일 창립하여 현재 회원 1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모제와 학술세미나 등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영덕군 주민참여 예산제에 병풍바위 탐방로 개설공사를 공모, 선정되어 2021년 11월 영해동학혁명 탐방로 순례기행을 개최한 바 있다.

‘동귀일체-선을 잇다’ 조각전

고재춘 동덕, 종로 인사아트센터에서



고재춘 동덕(신태인교구)이 4.27-5.3(화)간 종로 인사아트센터에서 ‘동귀일체-선을 잇다’ 주제로 조각전시전을 개최하였다.

고재춘 동덕은 부모때부터 천도교를 한 교인 집안으로, 원광대 조소과 졸업(’90)후 이태리 명문 국립CARRARA 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돌(석재)을 매체로 한 조형과 구성, 형태와 공간에 집중한 조형 예술가다. 그동안 서울 청담동 이목화랑, 예술의 전당 금곡 아트센터 등에서 8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한국조각가 협회전, 홍콩 컨템포러리, 뉴욕 리바갤러리, 서울 모던아트쇼(코엑스) 등 국내외 유명 단체전에 계속 참가 해온 실력과 조각가이다.

금번 전시회는 주제와 내용이 전부 천도 진리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는 <수심정기>로 모두 21개의 세라믹(도자기) 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두상 안에는 성미, 청수, 천지 자연의 요소를 담았다.

제2부는 <인태>, 작품마다 생명의 잉태와 시작을 상징하고 있다(글사진/김창석)

모심으로 하나되는

포덕 163년
의암성사
순국100주기
추모식

포덕 163년(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천도교중앙대교당

 천도교중앙총부